

특허기회 확대되고, 녹색기술심사 빨라진다

우수발명의 특허획득 기회확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지난 7월 1일 개정특허법 시행에 따라 우수발명이 절차상 잘못으로 인해 특허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한 지식재산부국 선도' 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개정 특허법이 2중 3중의 단계별 보완장치를 통해 우수발명의 특허획득을 지원한다" 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허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정이 폭넓게 허용되고, 특허가 거절된 경우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 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성이 있는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허획득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발명의 사소한 오기를 특허청이 직접 고칠 수 있게 하고, 특허료 지연납부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감액함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이번 개정특허법 시행으로 특허 자체 특허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획득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특허제도 개혁이 추진된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며 국가로부터 R&D 금융지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은 신청 후 1월내에 심사되고, 신청 후 4월내에 심판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심사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통하는 고품질 심사를 달성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은 산업계·학계 등 외부의 의견들을 심사기준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외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친화적(user-friendly) 웹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나의 특허정보 관리, 편리해진다.

특허청, 사용자 맞춤형 특허정보 관리포털 제공

안으로는 특허출원 이후의 진행정보나 등록정보, 심판정보 등 개인의 모든 지재권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
고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그간 온라인 출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특허로 웹사이트(www.kiporo.go.kr)를 지난 5월부터 특허정
보 관리포털(가칭 '특허로 2.0')로 확대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오는 12월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출원건수가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대기업이나 특허법률사무소는 자체적인 특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특허관리 S/W를 구입하여 특허관리 등에 활용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개인출원인이나
중소기업 등은 특허로를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특허정보 조회에만 의존하여, 마감기한이 있는 서식 제출이나 수
료 납부 등 전반적인 지재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에 확대 구축될 특허로 2.0은 이러한 다양한 여건의 사용자를 고려하여 맞춤형 특허관리 기능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
정이다.

제공 특허청

